

관세청 차장, 추석 명절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점검

- 추석 명절 밥상물가 안정 위해 할당관세 적용 냉동 돼지고기 반출현황 점검
- 세율인하 효과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악용행위 엄정 대응’ 밝혀

박헌 관세청 차장은 9월 17일(목)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롯데글로벌로지스 이천물류센터를 방문하여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인 냉동 돼지고기 신속 통관 및 보세구역 반출 현황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관세청은 할당관세 적용물품 중 통관과 국내유통 단계에서 고의지연 가능성이 있는 냉동 돼지고기, 냉동과일, 해바라기씨유 등 18개 품목을 집중점검 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추석을 맞아 밥상 물가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할당관세 적용 세율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신속 통관 및 보세구역 반출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헌 차장은 창고 관계자와 함께 냉동 돼지고기가 보관된 보세창고 현장을 둘러보며, 수입통관 및 보세창고 반출입 자료와 현장의 실제 반출량 등 재고 물량을 확인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따른 반출 의무기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이어 세관 현장 직원들에게 “냉동 돼지고기 등 물가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해 24시간 신속 통관 지원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수입신고 후 의도적인 반출 지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관세청은 물가안정 취약품목에 대해 보세구역 입항에서 반출까지 통관소요시간을 모니터링하여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신속하게 반출되게 하고, 할당관세 악용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생 물가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여행자)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책임자	과 장	김승민 (042-481-7820)
		담당자	사무관	백종성 (042-481-7945)